



國立公園大會

山門을 지날때 내리기 시작한 비가 멈추는듯 하다가는 다시 퍼붓고 등산복은 비에 젖고 땀이 배어 물퐁덩이 되었다. 華嚴寺에서 老姑壇에 오르는 길은 가파랐다. 중턱을 지나「코재」라는데 다다르니 겨우 돌치고 나면 또 깎아 세운듯한 벼랑이 앞을 가려 갈수록 泰山이다. 그러나 20里 남짓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많은 것이 눈에 띈었다. 큰 산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아름드리 나무들, 이끼끼 奇岩絶壁, 소리내어 흐르는 맑은 물, 平地에서 흔치 않은 自然의 造化에 다시 한번 敬意를 表하지 않을 수 없었다.

自然을 아끼고 自然과 親熟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갖는 國立公園大會를 뜻깊게, 보람있게 하려고 모여 들었다. 十代의 靑少年들, 老益壯을 자랑하는 七旬의 自然愛護家들, 옷차림이나 생김새는 달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1506高地를 올라 왔다. 天王峰, 般若峰 모두 이름난 智異山의 連峰들, 그러나 西端에 있는 이 老姑壇이 더 귀에 익다. 이곳에서 서니 天下가 다 내 발아래다. 雲海와 樹海속에 웃득웃은 이 靈峰은 仙境에 노는것 같고 하늘이 손에 잡힐듯한 느낌이다. 視界가 좋은 날은 膽津江 굽이쳐 흐르고 그멀리 南海바다가 내려다 보인다. 바로 이것이 내나라 錦繡江山의 平和로운 모습이다.

各處에서 모여든 五百餘名이 내 祖國, 내 疆土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自然을 소중히 간직하자 소리 높여 외치는 것 같았다. 第1回 國立公園大會는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老姑壇에서 베풀어졌다. 豫定이 늦어져 漆黑같은 밤이다. 옆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다. 氣溫도 제법 내려 갔다. 산을 타느라고 지친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 爽快한 氣分들이다. 會員들이 서로 누구인지 수인사도 없는 가운데 大會가 進行되었다. 단 하나 共通點을 찾을 수 있다면 自然을 아끼고 自然과 親熟해 보겠다는 마음, 이것은 대단히 重要的 것이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 기껏 五百餘名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들의 決意와 信念은 智異山 못지않게 크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確信할 수 있었다.

老姑壇의 合唱은 莊嚴했다. 우리가 힘차게 부른 愛國歌는 어디 까지 메아리 쳤을까. 틀림없이 天地를 震動시켰다. 내 祖國, 내 疆土를 사랑하고 大自然을 소중히 간직하자는 외침은 몇사람의 가슴을 두드렸을까. 이곳에 모인 五百餘名, 아니 國民의 가슴속 깊이 파고 들었다. 1975年 7月 26日 우리는 征服할 수 없는 大自然, 老姑壇에서 歡喜에 넘치는 國立公園大會를 마쳤다.

회 장 김 윤 기